

01 교회소식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

풍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체험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만민의 성도들은 성탄절을 맞으며 기쁨과 감사로 가득하다.

02 생명의 말씀

주님의 사랑

구세주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서는 아무 말없이 희생과 헌신이 따르는 사랑, 생명을 살리는 참 사랑을 보여 주셨다.

03 기획특집

만민을 위한 7년간의 사랑과 공의

지난 7년간 말로 다 할 수 없는 목자의 희생과 헌신은 전 세계 만민을 구원과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었다.

04 간증

“아니 될 것 같았던 나를 축복의 주인공으로~”

이재록 목사의 설교와 기도를 통해 응답과 축복을 받고 변화되며 악한 영의 세력에서 자유를 얻어 행복한 국내외 성도들의 간증.

# 만민뉴스

제819호 2017년 12월 24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사랑합니다!”

### 여느 해보다 뜻깊은 성탄을 맞는 만민 성도들



영광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교회는 12월 15일 밤 9시 50분 성탄점등식이 있었다.

GCN방송으로 생중계 되는 가운데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연일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한파 속에서 우리 교회 야외행사로 성탄점등식이 있는 오늘은 영상의 기온과 맞춤날씨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늘 체험하니 믿음을 가지시고, 허상인 이 세상이 아니라 실상인 천국을 소망하며 더 뜨겁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12월 24일 주일에는 대예배와 저녁예배 때 ‘주님의 탄생’(마 1:21~23)이라는 제목으로 이재록 목사가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 주님의 부활과 재림에 대해 설교한다. 저녁예배 시 설교 후에는 성탄전야행사로, 예능위원회 주관 ‘주님의 탄생’이라는 공연을 통해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리는 시간을 갖는다.

12월 25일 성탄절에는 오전 11시부터 성탄축하예배를 드리며, ‘축복’(롬 13:10)이라는 말씀이 증거된다. 특히 사랑으로 용서하시며 기다림으로 변화된 성도들을 통해 전 세계 복음 전파의 열매, 수많은 영과 온 영의 열매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기에 여느 해보다 설렘과 기다림, 감사로 가득하다.

이처럼 올해 성탄절이 더욱 특별한 까닭은 지난 7년간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중보기도를 올린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생명 다한 희생과 헌신을 통해 성도들의 삶에 축복이 넘치기 때문이다(관련 기사 3, 4면).

이러한 체험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깨달아 성경 말씀 안에 거함으로 영혼이 잘되는 축복을 받았다. 어찌하든 받은바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고자 성도들은 있는 곳곳에서 생명 다해 충성하니 대통령 표창을 비롯 국무총리상, 장관상, 산업포장 등 각종 수상과 승진, 사업타일터에도 축복이 넘치고 있다.

소방설비회사 대표인 박인식 피택장로(무안만민교회)는 “한때 술과 도박, 가정 폭력을 행하며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고통 속에 살았던 제가 만민 제단에 인도받아 생명의 말씀과 목자의 기도로 새사람이 되니 사업터에도 축복이 넘칩니다. 올해는 더욱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 목자의 사랑이 깊이 느껴지는 성탄입니다.”라고 고백했다.

미국 뉴욕인터내셔널만민교회 담임 심 제임스 목사는 심장 동맥이 거의 막혀 즉시 수술하지 않으면 사망할 수밖에 없는 위급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시공간을 초월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받은 뒤 신속히 회복되어 운동이 가능할 정도로 건강해졌다. 이 일은 전 과정을 지

켜보며 기도로 함께해 온 성도들에게 큰 믿음이 되어 온 교회가 더욱 기쁨 가운데 성탄을 준비하고 있다.

네팔만민교회(담임 이해천 목사) 성도들은 뜨겁게 작정 기도하고 금식하며 어찌하든 주님을 닮은 깨끗하고 선한 마음으로 변화되어 성탄을 맞이하고자 힘쓰고 있다. 2015년 4월, 수천 명의 사망자를 낸 강도 7.8의 지진에서 이재록 목사의 기도로 성도들은 물론, 그 가족과 200여 개의 지·협력교회까지 완벽하게 보호받은 체험이 교회를 반석에 세우고 성도들이 영육 간에 축복받는 계기가 되었기 까닭이다.

공고민주공화국 킨사사만민교회 세바스천 임페토 판고(국회의원, 기독교 대표) 장로에게도 이번 성탄은 특별하다. 2014년 에쿠아토르 주의 주지사로 있을 때 그곳에 에볼라가 창궐하여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요청하여 받은 뒤 감염자와 사망자 발생이 중단되고 결국 에볼라가 종식되는 큰 권능을 체험한 것이다. 이에 올해는 하나님 나라의 장로로 기쁨부음 받는 축복을 받았다.

이처럼 전 세계 1만 1천여 지·협력교회 성도들은 해를 거듭할수록 크고 놀라운 목자의 권능을 체험하고 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을 맞아 주의 사랑에 더욱 감사하며 주님을 닮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되기를 바란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7)

# 주님의 사랑

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율법의 저주를 끊고자 예수님께서서는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부터가 모든 공의를 이루는 시작이었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근본 본체로서(빌 2:6), 예수님께서서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기에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과 권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사람의 몸에 그 신성을 가두고 육의 공간의 한계들을 철저히 겪어 가셨습니다. 죄인들을 살리는 참된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해 초라한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 구유에 누이셨고, 인간의 가난을 대속하시기 위해 가난하게 나셔야 했지요. 사람들처럼 굶주림과 피곤함, 슬픔과 고통도 느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언제,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지 정확히 아셨습니다. 죄 사함의 공의를 충족시키는 과정은 예수님도 결코 쉽지 않으셨지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했듯이 철저히 그 값을 치르며 공의를 채워가셨습니다. 장차 임할 십자가의 고난을 잘 아셨지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그 영광의 순간을 마음에 그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지요. 이렇게 온 생애를 헌신하시고 종국에는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마음 중심으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 2. 사랑의 측면에서 예수님 사역

하나님의 공의를 이룸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말씀한 대로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줄 만큼 영혼들을 사랑하셨기에 기꺼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영적인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상대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맞춰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대를 무조건 감싸주고 받아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이로운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참 사랑이라 할 수 있지요. 이로 인해 때로는 아픔도 있고 희생이 따를 수 있지만 감내하면서 참된 길을 알려주고, 그 길을 스스로 걸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상대를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러한 사랑이 계셨기에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습니다. 인생들을 너무 사랑하심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책망과 권면의 말씀도 해 주셨고, 그 마음에 변개함이 없고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여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엄히 대하셨지요.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믿음의 연단을 받을 때도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으로 들어가고자 노력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도 좌절하거나 낙망하지 않을 수 있지요. 주 안에서 잘하려 했는데 책망을 들었다 하여 힘들어하거나 지쳐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나를 온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사랑임을 느낌으로써 진리를 마음에 새기는 기회로 삼을 수 있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사랑의 주님께서서는 늘 바라보시며 중보기도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행군을 결코 멈추지 않고 끝내는 참 자녀의 모습으로 나오기를 지금도 응원하고 계시지요. 이러한 주님의 사랑,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늘 기억하여 주님을 닮아가며 영광 온 영의 마음을 신속히 이루시기 바랍니다.

## 3. 영광의 측면에서 예수님 사역

예수님께서서는 공의와 사랑으로 십자가의 섭리를 완성시키셨습니다. 이를 통해 얻으신 열매가 바로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공의를 완성하심으로 죄

인 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와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아버지 하나님은 물론 예수님께서도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말씀한 대로입니다. 또한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물며 주님을 닮은 영광 온 영의 자녀들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큰 영광을 얻으시겠는지요. 영광 온 영의 사람은 하나님께 능력과 권세, 권능을 받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 땅에 보이는 권능의 역사는 많은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로 인해 믿는 이들은 원수 마귀 사단의 핍박과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을 지켜 거듭 성장시켜 나가면 결국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천국에서도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무 죄없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랑은 무한하고 광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근본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희생과 헌신이 따르는 사랑, 생명을 살리는 참 사랑을 인생들에게 보여 주시므로써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했으니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날마다 변화되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천여 년 전,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써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아무 죄없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며 보혈을 흘려 주셨지요. 이사야 53장에는 예수님의 참혹한 십자가 고난에 대한 예언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채찍에 몸이 찢기고 가시와 못에 찢리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감당하셨으며, 인생들의 모든 질고와 슬픔을 짊어지시고 멸시와 핍박을 감내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보여 주셨습니다(롬 5:8).

성탄절을 맞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세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행하신 모든 사역의 의미를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 1. 공의의 측면에서 예수님 사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영계의 법칙에 따라 공의의 값을 치르시고 죄인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모든 사람은 범죄한 아담의 후예로서 이 땅에서 죄인으로 태어나 ‘죄의 삯은 사망’ (롬 6:23)이라는 영계의 법에 의해 ‘사망’

**만민뉴스**  
등록 서울, 다 01840(1989.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 일월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의행**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 마지막 때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 시작된 7년간의 사랑과 공의



우리 교회는 1982년 개척 이후 민족복음화와 더불어 세계 선교를 땅끝까지 이르러 성령의 권능으로 창대히 이루어 왔다. 이에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지막 때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 급속한 영의 흐름을 허락해 주셨다. 성도들의 영혼이 잘되게 하심으로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들로 나올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열린 것이다.

2010년 12월 25일을 시작으로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 뜨거운 사랑의 간구를 올리며, 죄에서 돌이켜 참 자녀로 나올 수 있도록 치려야 할 공의의 값을 온몸으로 대신해 주었다. 이로 인해 대학생들을 시작으로 '새 예루살렘 가기 운동'이라는 전 성도 '영적 회복 운동'이 일어났다.

2013년 3월 부활절에는 주의 종과 레위족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목자의 중보기도를 통해 공의로는 보응받을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까지 해결받아 이전보다 신속한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5월에는 이재록 목사의 기도로 8명의 성결한 주의 종과 일꾼들의 영이 분리되어 동시에 천국과 지옥, 음부를 다녀와 간증함으로 아름다운 천국 소망이 더해지며 믿음의 행함에 박차를 가했다.

더욱이 2014년 10월, 이재록 목사는 교회 창립 32주년을 기념해 새 예루살렘 목자의 성을 3D로 제작해 공개함으로써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의 소망을 더해 주었다. 2016년부터는 중·고등학생들을 산상기도처에 초대하여 세상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으며, 2017년 초에는 성도들을 위해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려 다시 한 번 변화와 축복의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이와 더불어 2011년부터 번갈아 기관장 교육과 지역

장·조장·구역장 교육을 열어 마음 깊은 곳까지 조명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었다. 믿음의 분량을 비롯해 영, 온 영, 사랑, 사랑의 깊이, 권능을 주제로 마음 근본의 악까지 벗어버리고 주님을 닮은 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 영의 마음을 신속히 이룰 수 있는 길을 알려 주며 권능을 사모하는 흐름이 조성된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매년 8월 첫 주가 되면 만민 하계 수련회를 통해 기온 조절 및 갖가지 질병과 연약함이 무수히 치료되는 재창조의 권능을 체험케 해 주셨다. 이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이끌기 위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채워야 할 7년간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리하여 만민의 성도들은 믿음의 큰 성장을 이루며, 목자와 신뢰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 달려가는 보석처럼 귀한 영혼들로 나올 수 있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영혼들을 사랑하기에 온몸과 마음을 다해 감당한 7년간의 공의 안에는 무엇보다 전 세계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담겨 있었다. 그 결과, 국내외의 1만 1천여 지·협력교회와 함께 목자와 하나된 성도들을 중심으로 교회 조직이 굳건해지고 교계 진출과 세계 선교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등 재창조의 권능으로 풍성한 열매가 맺히고 있다.

올해만 해도 이 목사의 기도를 통해 강력한 허리케인 '어마'가 진로를 변경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세계 각국에서 가뭄 중 단비가 내리는가 하면 폭우를 멈춰 홍수를 막고 기온이 최적으로 조절되는 기사(奇事)가 나타났다. 또한 지진과 각종 재앙에서 보호받고 에블라 등 신종 바이러스가 퇴치되는 등 마지막 때 자연 재해와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가 널리 알

려진 것이다.

이뿐 아니라 이 목사가 기도해 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미국, 캐나다, 이스라엘, 라트비아, 프랑스, 케냐, 파키스탄, 몽골, 중동 등 해외 곳곳에서 집회가 열려 전 세계 무수한 영혼이 에이즈, 암 등 수많은 질병을 치료받고 시력, 청력이 회복되며 귀신의 세력에서 놓임받는 등 희한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였다.

이와 더불어 교단과 교파, 국경을 초월하여 지속적으로 개최되는 목회자 세미나와 61개 언어로 발간된 이 목사의 신앙서적을 통해 해외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밝히 알려 주는 성결의 복음이 전파되어 수많은 주의 종과 성도들, 불신자들을 깨우고 있다.

전 세계 170여 개국에 송출되는 GCN방송을 통해서도 생명의 말씀에 갈급하던 시청자들이 이 목사의 설교를 듣고 삶이 변화되며 질병을 치료받는 등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전도함으로 몰도바, 스위스, 프랑스 등 곳곳에 지교회와 세워지고 있다. 또한 이 목사의 환자기도를 받은 시청자들이 암, 급성 폐성심, 뇌졸중, 불임 등 갖가지 질병을 치료받고 기도제목에 응답받음으로 기도 요청 서신과 간증이 쇄도하고 있으며, 기독교인들뿐 아니라 무슬림과 힌두교도들도 권능을 체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 시작된 7년의 세월은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전 세계 만민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처럼, 인생들의 변화를 위해 흘리고 흘리고 흘린 목자의 눈물로 죄에 물들어 강박해진 사람들의 근본까지 변화시키며 가장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으로 강권하여 이끌고 있다. 이처럼 무궁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린다.

**12**  
DECEMBER 2017  
12/24~12/30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나의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믿음
- 아버지의 섭리 1
- 하나님의 공의 2
- 십자가의 도 23-24
- 천국 8-14
- 믿음의 분량 19-23
- 지옥 17
- 일곱교회 5-11
- 사랑장 1-4
- 성령의 음성주관인도 7-9

**GCN TV 설교**

- 물과 귀신 (이수진 목사)
- 섬김 (이미영 목사)
- 자기 발견 4 (이미경 목사)
- 영의 세계 79 (이화선 목사)
- 옴기 강해 24 (신동초 목사)
- 3계령 3 (영구영 목사)

**예능 프로그램**

- 권능 스페셜 8
- 마지막 때 8
- 모두 드려요 23
- 창조와 과학 18
- 옛날 옛적에 (시즌2) 8
- 내 마음의 찬양 31
- 알콩달콩 어여쁜 울동 73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다시해보기) 3

**해외성회 및 성탄특집**

- 2017 성탄 전야 공연
- 2017 성탄 축하 예배
- 독일 연합대성회 3
- 믿음으로 걸아온 길 14

전국 어디서나 **alleh tv 882번**

세계 어디서나 **Roku TV**

# “40여 년간 괴롭히던 악한 영들이 떠나 새로 찾은 인생, 행복의 연속입니다”



**양윤경 집사**  
(49세, 1대대 9교구)

어릴 때부터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상한 소리가 흘러나왔기에, 저는 20여 년 전 조울증이라는 병원 진단을 받고 정신질환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청과 환각 증세로 여러 번 자살을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주민의 신고로 위험을 면했지요.

음식을 먹으면 속이 메스껍고 울렁거려 하루에 한 끼 정도 간신히 먹었으며, 심장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뜨거운 고통을 받았습니다.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계속 악한 말이 나왔고 무엇을 하고자 해도 몸이 따라 주질 않았습니다.

2017년 초, 만민기도원 이복님 원장님은 제게 7주 동안 기도원 집회에 참석하고 교

구 식구들이 함께 작정 기도할 것을 권유 하셨지만 저는 원수 마귀 사단의 방해로 인해 제대로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지난 8월, ‘만민 하계수련회’를 앞두고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서는 수련회 시 귀신의 정체가 밝혀지고 고통받는 이들에게서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제 안의 어둠들은 저를 집회 장소 밖으로 유인해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당회장님과 원장님의 중보기도, 교구장님과 교구 식구들, 기도제물 등 많은 분의 사랑의 기도를 통해 수련회 후 이희진 목사님이 당

회장님께 기도받은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해 주실 때 결국 제 안에 있던 귀신들은 떠났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마치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집안일도 기운차게 해 놓고 교회의 각종 모임에 참석하느라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지요. 이웃들에게 전도하고 저녁에는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해 찬양을 부를 때면 저도 모르게 어린아이처럼 울동이 나옵니다.

제 자신조차 포기했던 저를 위해 눈물로 간구해 주신 당회장님께 감사드리며, 상상할 수 없었던 행복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 “엔라씨 방송에서 당회장님의 설교를 듣게 된 것은 행운이었습니다”



**알베라르도 모레노 성도**  
(49세, 콜롬비아만민교회)

2012년 4월, 농구를 하다가 그만 왼쪽 발목이 탈골되어 저는 수술을 받아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라고 권했습니다. 아내는 엔라씨 방송(스페인어권 최대 기독교방송)을 통해 이 목사님의 설교를 시청하며 큰 은혜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재록 목사님의 ‘생명의 말씀’ 프로그램에서 설교 후에 해 주시는 환자기도를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기도받은 즉시 발목이 치료되어 수술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후 실명 위기의 오른쪽 눈과 뇌졸중도 기도받고 치료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엔라씨 방송을 통해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지속적으로 듣기 시작하면서 콜롬비아에도 지교회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 하였던니 마침내 2012년 8월, 저는 콜롬비아만민교회 양 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제 삶은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생명의

말씀과 권능을 체험하면서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술을 마시며 혈기가 많아 가족과 늘 다투었지만, 이제는 화평한 가정을 이루었을 뿐 아니라 남선교회 회장, 봉사대, 재정 부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리며, 주 안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당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 “아니 될 것 같았던 제가 목자의 눈물로 변화되었어요”



**이재광 형제**  
(18세, 고3선교회)

모태신앙이었지만 저는 중학교에 입학 하면서 PC방, 노래방에 가느라 예배에 빠지고 학교 레슬링부에 들어가면서 성격도 거칠어졌습니다. 3학년 때는 팔 부상으로 운동을 그만두고 목표했던 고등학교도 떨어지니 마음이 공허하기만 했지요.

그러던 2015년 10월, 난생 처음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철야’에 자발적으로 참석해 기도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기도가 잘되지 않았는데 매일 참석하다 보니 응답받는 체험을 통해 기도의 맛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난데없이 눈물, 콧물

이 하염없이 쏟아져 어리둥절할 때도 있었지요. 더욱이 마지막 날 시상식에서 추천으로 상을 받았는데, 이 일을 계기로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5월에는 학생주일학교 학생들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초대로 산상기도처를 방문했습니다. 예배 때 화면에서만 봤던 당회장님을 가까이에서 보니 너무 신기하고 행복했습니다. 저는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았는데, 제가 아플까봐 살포시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는 섬세한 사랑이 느껴져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야 하는데...’ 하시는 듯한 애절한 마음이 느껴져 또 눈물이 났지요. 그 뒤 저는 세상 것들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주어져 영화, TV, 게임, 이성애 관한 마음도 단번에 버릴 수 있었습니다.

이후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새 예루살렘 소망이 더해지니 포기했던 공부도 목자의 힘이 되고자 열심히 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선교회장이라는 귀한 사명도 맡게 되었습니다. 아니 될 줄 알았던 저를 변화시켜 주신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 그리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033)641-3790, 010-3343-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분성로 476 ☎055)322-7055, 010-6605-2254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22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시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9978-2428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구백자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2909-2862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학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산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남로 153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3049-20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학사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성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2208-5719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빌/D ☎031)905-2419, 010-2276-1014